

경기부진속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시세폭등 가뭄피해 우려 시세차액 노린 매점매석 영향

극심했던 지난 봄 가뭄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측되는 일부 품목들의 경우 경기부진 가운데서도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시세폭등 현상 초래. 당귀, 택사, 산약, 백지, 방풍, 천궁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생산시기에는 의도적으로 값을 떨어뜨렸다가 대량 물량을 잡은후에는 풀지않고 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일부 장사군들의 매점매석 수법은 식품용 반입약재의 혼용 유통 관행과 함께 생산농민들의 숨통을 조이며 국내 생약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인진, 익모초 등 풀잎 약재들의 경우 가뭄피해로 생산량이 감소, 생산시기 임에도 예년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7월말 현재 근당(6백g 기준) 1천8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는 현지초도 예년 이맘때 시세(근당 6,7백원 선)에 비하면 무려 3배이상 폭등한 값이다.

5,6월 가뭄피해가 극심하긴 했지만 이어 내린 장마비가 어느정도 해갈시킴으로서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귀 지난 5,6월 가뭄영향으로 근당(6백g 기준) 1만원 선까지 치솟았던

토당귀 시세가 최근 들어 다소 빠진 9천5백원(절품), 8천원(통)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가뭄피해를 우려한 일부 장사군들에 의해 매점매석돼 있던 당귀가 최근 수급조절위원회에 수입 요청되면서 일부 물량이 시중에 풀린 때문이다. 국내 재고량은 약 1백만근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국내 수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일당귀도 근당 7천원 선으로 약보합세다. 산지인에 따르면 진부 당귀 2만여근 정도가 지난 7월31일 영천장에 7천원 선에 풀렸다고. 햇것 출하하기가 가까와짐에 따라 당귀 시세는 다소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맥문동 7월3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맥문동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이 6천원(거심) 4천5백원(막막), 밀양산은 8천원(거심) 5천3백원(막막) 선. 청양산 거심 특품은 근당 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거래시세인 청양산 9천5백원(거심), 8천원(막막), 밀양산 1만1천원(거심), 8천5백원(막막)에 비하면 다소 하락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올 햇것 수확작업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지만 경기부진으로 시장에

서의 매기도 별로 없고 시세도 낮게 형성돼 있어 농가에서는 출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보합세 전망.

구기자 햇것 출하가 시작된 구기자 시세는 다소 내림세. 7월3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청양산 햇구기자 값은 지난 6월 근당(6백g 기준) 1만2천원 시세보다 다소 떨어진 1만원선이다. 청양산지에서도 근당 9천~1만원선. 아직까지의 작황은 그런대로 평년작이나 지금 출하돼 나오는 것들은 알이 굵긴 하지만 색이 어둡고 품질이 고르지 못한 편이다. 품질이 더 나은 물량은 이달 말경부터나 출하돼 나올 예정. 경기가 없어 출하량도 그리 많지 않은 편으로 청양 장날 하루 출하물량은 2천여근 정도다.

산수유 지난해 이맘때 물량부족으로 근당 5만원선까지 폭등했던 산수유시세가 지난 가을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1만원선으로 하락하자 물량을 내놓지 않던 업자들이 최근 시세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자 너도나도 물량을 쏟아내놓고 있는 상황.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산수유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의 경우 1만 6천원, 그보다 못한 중품은 1만4천원 선이다.

오미자 상보합세. 물동량이 귀한 국산 오미자 시세는 꾸준한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7월3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2만8천원 선으로 지난달 시세와 보합세. 근당 2만원선에 거래되던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다소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중국산도 근당 8천5백원 선으로 상보합세 이루고 있다. 7,8월 폭우로 다소간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경과로는 평년작을 기대해도 좋을 듯.

산약 지난 6월초 근당(6백g 기준) 6천원 선이던 식산약 시세가 7월말 현재 경총 오른 7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자연산인 생산약은 그나마 품귀. 근당 2만원선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 예년비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동량 부족도 원인이지만 지난 봄 극심한 가뭄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할 것을 예측한 일부 상인들의 매점매석이 시세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 근당 5천6백원(식산약) 선이던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무려 2천원 폭이나 오른 셈이다.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

작약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품목. 재고량은 충분하나 가격상승 기대 심리에 의해 출하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은 부진한 편이다. 지난 봄 극심한 가뭄영향으로 생산량 감소를 예측한 일부 장사군들에 의해 사재기가 들어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의성산 상품이 7천원, 그보다 못한 중품은 5천5백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호남산은 4천8백~5천원 선이다.

전호 이질이나 만성장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전호는 지금 품귀중. 제주도 와 울릉도에서 채취되는 자연산에 의존해오다 3년전부터 목포 등 전라남도 섬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전

호는 시세가 근당(6백g 기준) 2천원 정도로 낮게 형성되는 바람에 생산량이 급감, 최근엔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생산량이 예년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데다 올 출하량은 지난해비 3분의1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목포농협에서 올 수확량의 상당부분을 수매한 때문이다. 수요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전호 품귀현상의 또다른 배경에는 전남지역 출신 약초상들을 중심으로한 매점매석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7월말 현재 거래되는 전호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작년 이맘때 3천5백원(절) 선보다 60% 포인트나 오른 5천5백원(절) 선이다.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

천궁 다소 하락세. 지난해 이맘때 근당(6백g 기준) 1만2천원(절)선 까지 거래되던 일천궁이 7월31일 현재 경동약령시장에 내에서 근당 7천원(절)선을 형성하고 있다. 토천궁(절)도 근당 1만 8천원 선이던 지난해보다 다소 내린 1만2천원 선이나 물동량은 부진한 편. 지난해 생산량이 예년비 증가하면서 물량부족으로 폭등세를 보이던 일천궁 시세가 다소 안정세를 되찾는 듯 싶더니 극심했던 지난 봄가뭄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를 우려한 일부 상인들에 의해 매점매석됨으로서 근당 8천원 선까지 상승. 이같은 매점매석 사실을 뒷받침해 줄만한 근거로 상인들은 "대구 도매시장의 일천궁 경락가격이 5일만에 7천4백원에서 5천8백원으로 하락했다"며 "이는 매점매석의 용이성을 위한 유통업자의 농간"이라고 설명. 최근 일천궁에 대한 수입 요청이 있고부터 시중에 일부 물량이 풀리고 있고 시세도 1천원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천궁 시세는 앞으로도 더 빠질 것이란 예측이 강하다.

택사 최근 일부 품목들이 시세폭등을 노린 일부 장사군들에 의해 매점매석됨으로서 시세 상승하고 있으며 택사도 그중 하나. 지난 6월초 근당(6백g 기준) 4천6백원(통), 5천원(절) 선이던 택사가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5천3백원(통), 절품은 6천원선 까지 오른 시세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나 경기부진으로 실제거래는 부진한 편. 국내 수급에 필요한 물동량은 충분한 상황으로 시세도 다소 빠질 것이란 분석이나 수입 택사가 국산과는 외형상 구분이 되는데다 시장에서 별 인기가 없어 국산 택사 상보합세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국약재 시장동향

중약재, 약보합세

○...한약시장의 불경기 여파가 중국까지 영향을 미친 듯, 한여름 접어들면서 중국 현지의 중약재 시세가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5\$을 넘던 황련이 햇것 출하와 함께 20\$ 이내로 시세 떨어졌고 산수유도 23\$에서 20\$선으로, 패모도 햇것 출하되면서 6.5\$로 내렸다. 품귀로 8\$까지 치솟았던 오미자 시세도 주춤한 상태.

당귀 생산량 증가 예상

○...0.7\$ 하던 일천궁은 1\$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고. 국내 일천궁 풍작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내에서의 일명 '한국형 일천궁' 작업율이 많지 않았던 까닭이다. 현재 5~7\$ 선인 원지는 올 가을 수확량 증가

가 예상되는 원지는 시세도 지금의 5~7\$선 보다 다소 하락할 것이란 전망. 현재 1~2\$ 수준인 당귀도 올 가을 생산량 증가 예상.

강활 시세 폭등

○...7월1일자로 수입개방된 강활은 야생으로 중국 서북지방에서 주로 생산된다. 국내 강활과는 기원이 전혀 다른 식물. 중국정부의 야생채취 제한 정책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시세도 3\$에서 5\$로 폭등했다.

규격미달업체 정리

○...중국에서는 최근 약재 수요가 감소했다고. 이유인 즉 중국정부가 2,3년 전부터 한약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제약회사에 GMP시설을 하도록 규정, 규격미달업체나 합

량미달 약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과감히 도태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에 옮겨온 결과 관리상태가 부실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게된 때문이라고.

WTO가입대비 경쟁력제고책 강구중

○...중국에서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외국 제약회사들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들의 합병절차를 통해 내실다지기에 돌입했다. 동인당과 같은 전통 한방약 제조회사는 그대로 살리는 한편 한방약재를 원료로 신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그 규모를 늘리거나 내실을 기함으로서 수입 개방화에 대비 자국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회>